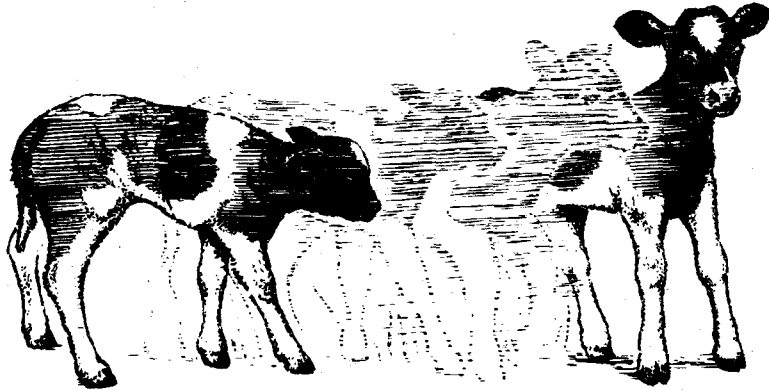


키중한 송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나?

— 폐렴과 설사를 중심으로 —



수의사 김 영 찬
(서울우유협동조합 지정수의사회 대의원
파주우유진료소장)

송아지를 키워본 사람치고 설사하고 기침하
며 혹은 비설비설 잘 자라지도 않고 주접
이 들거나하여 결국은 죽어버리는 경험을 안해
본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아직 송
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극히 적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필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해 동안 직접 진료를 담당했던 경험도 있지
만 실지로 낙농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송아지가 죽지 않을까”하고 안타까와
했던 때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육환경이나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간다
는 미국의 어느 통계에 의하면 송아지를 분만시
부터 자라서 만 12개월까지 어느정도 죽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에서 25%까지 높은 폐사율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마

리에서 열마리, 그이상 스물다섯 마리까지도 죽
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통계를 그대로 우리나
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이
숫자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미소는 도태시킬 경우에 고깃값이라도 건질
수 있으나 잘 알다시피 송아지는 죽으면 두엄
구덩이에 내다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누가
단돈 10원이라도 보태쓰라고 내놓는 법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버리면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는 피해를 좀 막을 수 없을 것인가?

모든 임상수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조금
만 조심하고 매우 간단한 기술을 알기만 하면
선천적인 배넷병신을 빼고는 절대로 죽이지 않
고 건강한 송아지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백일을 넘기면 우선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다고 믿어 어린 아이가 태어나 백일을 맞이하게 되면 잔치를 벌이는 습관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지만 송아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름동안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실지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태어나서 보름을 넘기지 못한 송아지 숫자하고 보름을 넘기고 한 달이 못되어 죽은 송아지 숫자가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어미 뱃속에서 약 열달을 살다가 바깥 세상에 처음 나온 송아지는 외부의 모든 환경 즉 우사 바닥이나 주위의 똥, 오줌, 좋지 못한 공기 등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세균으로 부터의 공격을 전혀 막을 수가 없는 조건으로 태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태어난 송아지는 처음 먹는 어미젖(이것을 초유라고 부른다.)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면역혈청을 먹음으로써 비로소 외부의 여러가지 악조건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태어난 송아지는 어미소 곁에서 태어나자마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늦어도 15분을 넘기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초유를(송아지 체중의 약1/10) 두 세번에 나누어서 먹어야만 한다. 여기서 15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가 어미의 면역혈청을 먹더라도 송아지 창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태어난 직후부터 15분까지는 100% 흡수되지만 약 6시간이 지나면 먹더라도 흡수는 거의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만일 어미소가 분만도중 죽었거나 유방염에 걸려서 초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이 많이 먹은 소의 피를 수혈해 주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이 많이 먹은 소의 우유에 계란 한 개와 식용유 1순갈을 풀어서 먹이고 비타민 A·D와 항생제 약간을 주사해 주어야만 한다. 초유를 먹지 못한 송아지나 위에 말한 인공초유를 공급받지 못한 송아지는 잘 먹더라도 비실비실 주접이 들고 기침, 설사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죽게 마련이다.

그러면 이러한 초유기를 지난 후 여러가지 질병 특히 설사와 기침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송 아지를 죽이는 두개의 큰 라이벌이 있는데, 하나는 설사이고 하나는 기침이다. 어느 것이 더 무섭다고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기침하는, 높은 설사를 하고 설사하는 높은 반드시 기침을 한다.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마리의 송아지가 한 우리에 섞여 있거나, 서로 꼬리나 귀끝·젖꼭지를 빨 수 있거나(특히 젖꼭지를 서로 빠는 것은 송아지 시절에 벌써 유방염에 감염되어 영구적으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환기 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 밖에 없거나, 차에 신고 여기저기 끌고 다녔거나, 섯바람을 막아주지 않았거나 이나 벼룩 또는 내부기생충에 감염되어 있거나, 바닥이 항상 축축해 습기가 많을 때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기침을 시작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기관지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때는 숨쉬는 것이 약간 빨라지고 객핵 기침하며 열이 오르거나, 심한 높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며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코끝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말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잘먹지 않으며, 눈자위가 푹 꺼지게 되는데 눈자위 꺼지는 높은 거의가 적당한 치료없이 죽고 만다.

관리자는 다음에 얘기하는 몇가지 사항을 주의깊게 체크해서 자기 목장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첫째로, 공기는 충분히 환기되어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물론 이 경우에 섯바람은 철저히 막아주어야 하며 섯바람이 들어오는 구멍과 환기구멍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송아지 우리바닥은 깨끗한 것이 물론 좋지만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축축하게 젖어있지 않게끔 항상 마른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세째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며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햇볕을 받도록 유도한다.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난로를 피워주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것은 별로 권장할 것이 못되며 차라리 덕석(牛衣)을 입혀주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네째, 일단 한번 남겼던 사료찌꺼기는 아까워 하지말고 쓸어버리고 항상 새롭고 신선한 사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송아지가 먹고 싶을 때 언제고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설파제로 치료하는 놈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흔히 우유를 먹는 송아지는 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젖을 먹는 송아지도 외부의 온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여러 조건을 주의깊게 체크 했는데도 만약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치료해 주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자기 목장의 어느 부분에서 얘기한 다섯가지 조건과 비교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이다.

치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항생제나 설파제를 "기적의 약"으로 믿고 주위의 좋지 못한 환경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주사질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아무 항생제나 설파제를 무조건 마구잡이로 주사해 보았자 병을 걸게 끌고 가는 것이지 원인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수의사와 의논해서 충분한 수분 공급과 영양액, 그리고 그 송아지에 알맞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송아지 질병의 약 90%를 점하는 설사나 기관지 폐렴은 거의 집고 넘어간 것이 되는데 이외에 송아지 배꼽이 항상 고름이 흐르고 부어있는 경우와 사료는 잘 먹는데 가끔 고창증(배에 가스가 차는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로 한다.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어미로부터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은 버리는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길이 바로 탯줄인 바 일단 어미소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탯줄은 잘려지고 오므라져서 혼탁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옥도정기로 소독해 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듯하다.

이렇게 강옥도로 소독해 주는 과정에서 잘못했거나 어미뱃속에 있으면서 오줌을 누면 배꼽

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던 작은 파이프가 배꼽줄에 있는데 이것이 미처 잘 오므라들지 못해서 오줌을 눌 때마다 배꼽파이프로 한 두 방울씩 흘러나와 항상 배꼽 주위가 질적질적하고 빨리 아물어 붙지 못해 고름이 나오는 것을 옥도정기나 바르고 항생제를 주사해도 잘 낫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배꼽의 오줌 나오던 파이프를 찾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야만 치료될 수 있다.

송아지가 3,4개월쯤 되어 거의 중송아지 모양을 갖출 때쯤 되어서 가끔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찬 것처럼 좌측 복벽이 불룩하고 잘 먹지 않으며, 심한 것은 토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목장주나 관리인들은 무슨 비닐을 먹었느니, 빨래를 먹었느니 또는 철사를 먹었느니 하며 설왕설래하는 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깔짚을 잘게 썰어주지 않고 벧짚을 긴 것 그대로 깔아 주어서 그것을 송아지들이 집어먹어버리면 어린 송아지들은 아직 벧짚을 소화시킬 만큼 충분히 1위가 발육되어 있지 못하므로 덜 소화된 벧짚이 그대로 4위로 넘어가 하루 이틀 쌓이게 되고, 4위는 완전히 소화될 수 없는 위와 같은 물질로 가득차게 되어 먹지 못하고 반복해서 가스가 차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설혹 잘 먹는다 하더라도 살이 찌지 않으며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고 배만 똥똥하게 되어 아랫배가 밑으로 처지게 된다. 이때에도 소화제나 먹여보아야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담당 수의사와 의논해서 빨리 개복수술을 실시하여 위 속에 들어있는 소화될 수 없이 똥똥히 뭉친 덩어리들을 꺼내주어야만 송아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를 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설사와 기침은 정성들여 관리해서 예방할 수 있으며, 송아지 배꼽의 만성과 고창증은 관리면(깔짚)에서 작은 정성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나는 일로 여겨지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목장을 집어치우고 다른 사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많은 인구가 먹고 살기에 많지도 않는 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